

사설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는 없는가?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모두 놓친다.’는 속담은 이제 옛말인 듯하다. 각종 서적, 인터넷 등에서 두 토끼를 잡는 법이나 이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이는 우리 대학문화에서도 마찬가지다. 굳이 융·복합, 복수전공제가 아니라도 흰 토끼와 검은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그러나 어설픈 작전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다.

신학기면 대학에서 쉽게 접하는 게 동아리 회원모집이다. 발잡을 설쳐가며 만든 전단지, 선물공세에도 불구하고 신입회원을 받기란 쉽지 않다. 왜 그럴까? 아직 대학이 무엇인지 잘 가늠하기 어렵고 어떤 동아리를 들어야 할지 파악하기도 어렵다. 갈수록 힘들어지는 취업난 속에 나의 관심사를 위해 단체 활동을 하자니 왠지 불안하다. 그러다 보니 스펙에 맞는 취업 동아리를 찾게 되고 고등학교 때보다도 더욱 힘든 싸움을 계속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생활도 미래의 설계나 목표가 명확하면 굳이 마다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뭔가 꿈꿔왔던 대학생활은 아닌 듯하다. 미래가 불안하고 현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삶을 변화시킬 동아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대학동아리의 전성기시대에는 관심사에 맞는 동아리를 선택하고 다양한 소양을 쌓을 기회로 삼았다. 그렇다고 미래설계나 취업에 방해가 된 것만은 아니다. 전공 관련분야의 취업은 물론 아예 동아리 관련 분야로 삶을 변화시킨 학생들도 적지 않았다고 본다(예석하게도 이러한 선배들의 사례를 소개하는 동아리는 많지 않은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리의 인기가 약해지는 이유는 뭘까? 필자는 동아리의 활동방향이 시대에 맞게 변화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본다. 3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지만 동아리의 운영방법은 동일한 것 같다. 과거부터 내려온 사업을 답습하고 이를 잘 치를 수 있는 가만 고민하다 보니 너무 업적에만 몰두하지 않았나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보다 대학의 역사가 긴 미국은 동아리를 대학행정에서 관리한다. 동아리의 필수조건으로 정기 잡지를 발간하게 하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의회회의방법에 준하는 회의를 하도록 하는 대학도 있다. 이는 사회진출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동아리의 주요소임을 나타낸다.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되 단순히 재미만이 아니라 과정의 명확화, 투명화, 기록화를 채득하는 것이 동아리활동의 기본이 될 때 그 가치는 극대화될 것이다. 최근 전 세계적인 화두는 리더십이다. 이에 여러 대학이 리더십 배양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리더십이 학습을 통해 획득되는 가는 논란이지만 리더와 리더십을 구분하면 가능한 일이다. 리더십은 한 집단의 공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부분의 자원과 시각을 이용하는 활동을 의미하고, 즉흥성, 인내, 목적의식, 상이한 견해와 가치를 가진 개인들 간의 갈등을 융통성있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사회생활에서 필수적인 리더십, 의사소통, 대인관계역량과 효과적인 회의법 및 기록문화를 함양하는 방향으로 동아리 활동이 전개된다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대학생활의 바람직한 동아리 활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주대신문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발행인·총장 허항진

편집인·주관 김동윤

편집국장 김영지

우)690-75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학교로 102

전화안내 064)754-2114

제주대신문 편집국 064)754-2277-9

제주대미디어<JUMP> news.jeju.ac.kr

“인원·시설 확충… 강의평가 강화”

인터뷰 허윤덕 통역번역대학원장 겸 외국어교원장

허윤덕(영어교육과) 교수가 지난 3월 1일자로 신임 통역번역대학원장에 임명됐다. 지난 20일 허윤덕 신임 통역번역대학원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취임소감은
“이번에 통역번역대학원장과 외국어교육원장을 겸직하게 됐다. 보직자로서 책임을 어떻게 다할지에 대한 고민이 앞선다. 우선 업무과약을 한 뒤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

▶통역번역대학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일단 하드웨어 부문에 해당하는 공간문제에서 통역번역대학원의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통역번역대학원의 위상에 걸맞게 강의실, 스튜디오 같은 공간이 늘어나야 한다. 학생

들이 외국방송 등의 방송을 청취하기 위해 멀티미디어실도 필요한데 이 또한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또 통역번역대학원 원생 숫자도 부족한 상황이다. 다들 알다시피 통역번역대학원은 1990년에 설립된의가 시작돼 2000년에 설립됐다. 14년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다. 현재 13명이 정원으로 한영과, 한중과, 한일과, 한독과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한독과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없어 유명 무실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타 대학의 통역번역대학원은 최소한 인원이 30명이 넘는다. 우리 대학의 통역번역대학원도 이와 비슷한 인원이 돼야 비약적인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우수한 학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학

의 총원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현재 직원이 한 명뿐이고 행정 조교도 없는 상황인데 행정직원을 늘려서 학생들과 교수들의 연구와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실무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졸업후 대학원생들이 실무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

▶외국어교육원은 어떠한가
“외국어교육원은 대학의 수준별 정규교양외국어 교육을 하고 있다. 또 외국어 특별강좌를 여는 등의 역할을 펼치고 있다. 그외에도 모의 토익 등을 열어 학생들의 어학능력 향상을 기하고 있다.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 강사의 경우 강사료가 맞지 않아 떠나는 경우가 있다. 앞으로 이를 잘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강의평가를 통해 수업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겠다. 학생들에게 마지막 강의 등을 통해 수업에 대한 평가를 받아 다음 강사에서 학생들의 불만과 문제점을 찾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특히 학부 학생들에게 외국어교육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외국어교육원은 우수한 강사를 확보해 학생들에게 좋은 수업을 선보일 자신이 있다. 또 불만으로 지적받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청하는 자세를 보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학생들이 외국어교육원을 신뢰해 적극적으로 이용했으면 한다.”

김명지 기자

미술학부 ‘백록담전’ 27일까지 문예회관 전시실

예술디자인대학 미술학부(학부장 손일삼) 교수작품전인 ‘2013 백록담전’이 23일 개막해 27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제1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

40여년 전통을 자랑하는 ‘백록담전’은 도민과 예술인들과 학생들에게 향토미술의 진수를 선보이고 제주도 현대미술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미술학부 교수 28명이 설치작품 6여점, 서예작품 2점, 회화 20여점을 선보인다.

태권도부 전국대회서 메달 3개 획득

제주대 태권도부가 지난 19일부터 6일간 강원도 영월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40회 전국대학태권도 개인 선수권 대회’에서 금1·은1·동1의 메달을 획득했다.

특히 68kg급의 노동현(체육학부 3)씨는 64강전부터 뛰어난 기량을 선보였다. 노씨는 결국 전국의 강자들을 차례로 물리치며 금메달을 따냈다.

한국대학태권도연맹이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제주대에서 8명의 선수가 참가했다.

아프리카 소 유전체 연구 수행

오성종 교수 국제워크숍 참여 국가 맞춤형 가축산업에 도움

오성종(동물생명공학전공·사진) 교수가 농업진흥청 차세대 바이오그린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아프리카 소 유전체 분석을 위한 국제컨소시엄’ 과제를 수행한다.

지난 21일 갈금화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국내 저명한 동물 유전체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국 6개 대학

및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등 30여명의 학자들이 모였다. 향후 아프리카 17개국의 소 유전체 연구를 위한 국제컨소시엄 구성과 추진 전략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오성종 교수는 “아프리카는 국민의 60~70%가 농업에 종사하고 가축은 아프리카 산업의 핵심”이라며 “하지만 현재 기후변화와 산업화로 멸종위기에 놓였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2070년경이 되면 한반도도 아열대 기후가 될 것”이라며 “아프리카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가축산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제는 농촌진흥청과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협의체(KAFACI) 소속된 17개 아프리카 국가들의 특성에 맞는 재래가축의 유전자원 목록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멸종위기의 가축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시행된다. 올해부터 3년간 각국의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유지 및 관리, 후속적인 공동연구 등을 하게 된다.

한편 오 교수의 ‘돼지유전체 완전해독 결과’ 논문은 지난해 ‘NATURE’ 인터넷판 표지논문으로 게재되기도 했다.

어린이 동화구연대회 참가자 4월 8일까지 모집

초등국어교육전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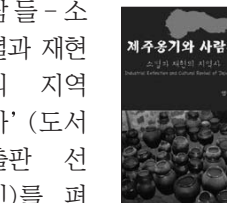
교육대학 초등국어교육전공(주임교수 전제응)이 제13회 제주 어린이 동화구연대회 참가자를 다음달 8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도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화구연대회는 전래동화와 창작동화, 세계명작동화를 얼마나 유익하고 재미있게 풀어내느냐를 평가한다.

문의=초등국어교육전공 사무실(전화 754-4811)

사람들

염미경(사회교육) 교수
‘제주옹기·…’ 저서 펴내



김혜연(생활환경) 교수
가정관리학회 부회장 위촉



한국가정관리학회는 1997년 설립된 가정학(가족, 소비자, 아동, 주거분야 등) 전국학회이다.

박희선 팬트렌스넷 대표
‘CEO에게 듣는다’ 강연



박희선(팬트렌스넷) 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2시 공과대학 4호관 세미나실에서 WISET 제주지역사업단이 주최하는 ‘CEO에게 듣는다’ 3주차 특강 열었다.

조운범의 콰트엑스
제주대 문화광장 강연



조운범씨(바이올리니스트)가 27일 오후 2시 아라뮤즈홀에서 ‘콰트엑스 조운범의 파워를 레식’ 공연을 선보인다.

운전면허

제주대학교 발전후원업체

한라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매일 학원 자체 운전면허 시험 실시

▶제주시 전지역 셔틀 운행 : 제주대↔학원 셔틀 운행

▶주말교육가능

▶제주여고입구 건너편(다리)↔학원셔틀버스 운행

제주시 아라2동 1320(제주여고 입구 동쪽)

☎ 755-9900

우리들에게 현재 필요한 경쟁력은 바로 ‘디자인’ 입니다.

TRU_Design

>>> 편집디자인 & 인쇄물 (홍보리플렛, 카달로그, 브로슈어, 포스터, 도서출판)

>>> 광고물 (현수막제작, 각종 배너 및 POP제작)

>>> 패키지물 (제품박스, 쇼핑백, 제품리플)

>>> 판촉물 (손수건, 타올, 상패, 트로피, 단체복)

>>> 각종 학술세미나 관련 홍보물 (발표자료집, 초대장, 결과보고서 및 홍보부스 렌탈)

상담문의

Tel. 064. 756. 2358 Fax. 064. 753. 5238

e-mail. tru7994@hanmail.net

제주대학교 창업지원단

창업사업화지원 “창업 아이템” 모집

▷ 제주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는 창업에 관심이 있는 학생, 도민 중 참신한 창업 아이템을 가진 창업자를 모집합니다.

▷ 선정된 창업자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1. 지원 내용

▷ 최대 3천만원 한도(총사업비의 70%이내)내에서 시제품 제작, 기술정보 활동비, 마케팅비 등 창업준비 지원

구분	제조업 분야	지식서비스 분야
정부 지원금	최대 50백만원	최대 35백만원
창업자 부담금	총사업비의 10% 이상 현금 부담, 20% 현물 부담	학생인 경우 총 사업비의 5%이상 현금부담, 25% 현물부담(주관기관 부담가능)

2. 신청 자격 / 신청기간 / 신청 방법

▷ 지원 자격 : 예비창업자 또는 기업의 대표자
※ 기업의 대표자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창업한 자

▷ 신청 기간 : 2013년 3월 27일 ~ 4월 17일

▷ 신청 방법 : 창업넷(창업지원관리관리시스템) 온라인 접수 http://startbiz.changupnet.go.kr

▷ 지원 제의 아이템 : 숙박, 요식, 사행성 관련 아이템 등

3. 문의 사항

▷ 제주대학교 창업지원단(http://changup.jeju.ac.kr)
Tel. 064-754-2066 Fax. 064-755-2131 담당자 김상현

선정된 창업자는 향후 창업교육 50시간 이상을 수강하여야 함. 창업보육센터 입주 희망 시 입주 관리 비용을 지원함.

“시인·소설가 등용문”

제33회 백록문학상 현상 공모

제주대신문이 창간 59주년을 맞이하여, 제33회 백록문학상을 현상공모합니다.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응모자격 :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부학생

2. 응모분야 : 시(1인 5편 이상) 단편소설(1인 1편)

3. 접수마감일시 : 2013년 6월 10일(월) 18:00까지

4. 접수장소 : 언론미디어센터 행정실(취업전략본부 3층)

* 응모시 원본 파일을 담은 CD(DVD)와 출력 원고를 동시에 제출

5. 발표 : 제주대신문 896호(2013년 7월 3일 발행 예정)

6. 시상내역 : 시 당선작 - 상금 50만원 및 총장상
단편소설 당선작 - 상금 70만원 및 총장상

* 당선작이 없을 경우 가작을 선정할 수 있으며, 가작 상금은 당선 상금의 절반으로 함.

제주대신문

교수시론

늘 변함없이 물 뿌려서 마당을 쓸고



전영준
사학과 교수

“

취업을 위한 스펙쌓기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바르게 하고 주변을 돌아보며

낙담한 친구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는 진정성이 더 필요하다

”

사범대 독후감 콘테스트 금상 수상작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를 읽고

현재 TV에서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 ‘인간의 조건’이라고 있다. 현대 문명 속에서 인터넷, 스마트폰, TV 등과 같은 필수품 없이 사람이 사회답게 살기 위해 ‘인간의 조건’을 만들어 가는 프로그램이다. 이 책에서도 현대생활의 필수 중 하나인 ‘인터넷’이 우리의 뇌구조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며, 경고한다.

편리하고 빠르고, 효율적이지만 그 영향으로 우리의 사고의 깊이는 갈수록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집중력이나 깊이 있는 사색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인간의 조건’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에 공감한다. 가까운 지인의 연락처도 기억나지 않아서 연락도 못하고, 특하나 스마트폰은 필요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산만하게 쫓다 쫓다를 반복하며 확인하려고 하는 점을 관찰할 수 있었다. 나 또한 과제를 하기 위해 컴퓨터를 켜고 검색하며 자료를 찾는 도중에도 다른 페이지를 열어서 딴 짓을 하다가 마감시간이 되어서야 급하게 과제를 하곤 했다.

이러한 일상생활에서의 의문점은 뉴스나 기사를 통해라도 엿볼 수 있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다. 스마트폰 때문에 공부를 집중할 수 없었던 고3 학생은 피쳐폰을 구입하게 되는가 하면, 스마트폰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용하는 등의 ‘스마트폰 중독’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렇

듯, 기기에 의존하기만 하고 스스로 무언가를 할 능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기까지 한다. 저자는 이러한 우려가 그저 걱정만 할 수준이 아니라고 말하며, 책에 많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이 책에 나오는 많은 인용문이나 실험과정, 내용, 결과들은 읽는 이에게 정확한 이해를 가져다 준다. 이러한 실험들을 통해서 나오는 결론이 가 정이나 자신만의 의견이 아니라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현실에서의 문제, 사실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준다. 우리 뇌에 대한 이야기, 책의 발달 과정, 세계 지도에 대한 영향력 등은 어느 정도 요약한 듯 보이지만,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하여 준다. 때문에 너무 지루하고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이겨내고 책을 끝까지 읽다 보면 새로 알게 된 사실이나 공감 가는 내용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멀티미디어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빠른 시간 내에 찾고, 더 쉽게 정보들을 비교해 나갈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실험 결과는 그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학습 성과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 것이다. 또한 검색엔진을 통해 저작물의 내용을 보는 것은 그저 그 저작물의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몇몇 단어들과 결론들로 조합된 내용이라는 것이 놀라웠다. 즉 정보를 걸핍기식으로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이러한 정보가 핵심적인 내용을 간추려, 중요한 사실만을 친절

하게 알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이 책을 ‘인터넷이 뇌구조를 바꾼다면 해결할 방안은 무엇이지?’에만 매달려 읽었다. 다른 내용은 요약해서 보고 싶다고만 생각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집중력도 떨어져 진 글 읽을 못 읽고 피상적인 정보만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다. 이처럼 인터넷의 효율성과 편리함의 대가로 인간의 존립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본능을 지녔다. 그 본능을 충족해주는 것이 바로 인터넷이다. 인터넷은 또한 그 편리함과 효율성, 신속함이라는 굉장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현 시대에서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사용은 불가피하다. 저자도 이 책을 지필하고 나서는 바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저자는 ‘인간’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초래된 현대사회에서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수용하는 컴퓨터의 노예로 전락하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무지’를 비판하고 있다. 즉 소프트웨어가 인간의 뇌와 처리 과정이 닮았다고 해서 그대로 순응하지 말고 문제를 인식하여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비판적으로 대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디어는 메시지가

주변을 돌아보며 낙담한 친구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는 진정성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오늘의 자신이 1년 후, 10년 후의 모습과 같아서 안 되기에 내 자신은 물론, 주변을 돌아봐야 한다. 한 해 두 해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대견해하고 후배에게 격려의 손길을 내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잘 갈무리하는 생활이 필요하다고 느낀다.

옛 선비의 공부 자세가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성품을 닦는 데에 있었다면, 오늘의 우리는 스스로의 생활 자세를 바르게 함으로써 마음속 의지를 실천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불별에 무의의는 계절 예찬의 감성도 필요하겠지만, 아무런 목적 없이 어울려서 하릴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아닐까?

3월이 거의 흘러갔다. 신입생은 새로운 세계를 열었고, 재학생은 또 다른 의지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이다. 학과 행사로, 학교 행사로 정신없이 바쁘게 흘러보내는 시간 속에 굳건한 마음으로 다잡았던 실천의지가 빛이 바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봐야 할 때다.

인터넷 중독에 우리 뇌는 병든다

하게 알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이 책을 ‘인터넷이 뇌구조를 바꾼다면 해결할 방안은 무엇이지?’에만 매달려 읽었다. 다른 내용은 요약해서 보고 싶다고만 생각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집중력도 떨어져 진 글 읽을 못 읽고 피상적인 정보만을 요구하는 수준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느꼈다. 이처럼 인터넷의 효율성과 편리함의 대가로 인간의 존립에 있어서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편리함을 추구하는 본능을 지녔다. 그 본능을 충족해주는 것이 바로 인터넷이다. 인터넷은 또한 그 편리함과 효율성, 신속함이라는 굉장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현 시대에서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사용은 불가피하다. 저자도 이 책을 지필하고 나서는 바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저자는 ‘인간’ 그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초래된 현대사회에서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수용하는 컴퓨터의 노예로 전락하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인간의 ‘무지’를 비판하고 있다. 즉 소프트웨어가 인간의 뇌와 처리 과정이 닮았다고 해서 그대로 순응하지 말고 문제를 인식하여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비판적으로 대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디어는 메시지가

다’라고 말한 마셜 맥루한의 주장처럼 나쁜 TV 프로그램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TV가 좋은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도 비판적으로 대처한다고 해서 혹은 기체가 의존하지 않는다고 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미디어는 정보를 전달하는 유통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각, 사고, 행동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회 환경을 만들기 때문이다. 특히나 어린이나 학생들은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쉬운 나이가기 때문에 이러한 해결방안은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은 인터넷처럼 정보를 신속·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해주는 대신 학습 성과를 향상시키고 인지적 능력을 높이는 대안 체제를 새롭게 구축하거나, 극단적으로는 인터넷을 없애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발명할 뿐, 지적 윤리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한다. 과거에 ‘책’이 등장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다고 생각했지만, 몇몇은 이를 ‘정보의 과부화’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의 독서는 우리에게 책 밖의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사고의 폭을 넓혀주고 있듯이, 인터넷도 이후에는 우리의 대처하는 방식에 따라 긍정적인 효과를 안겨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양지현 컴퓨터교육과 2

등문칼럼

읽는다는 것과 본다는 것



한창훈
전북대 국어교육과 교수
국어교육과 87학번

다시, 새 학기가 시작되었다. 변덕스런 날씨로 기분이 약간 반갑되긴 하지만, 역시 캠퍼스는 활기에 넘쳐야 제 멋이 살아나는 것 같다. 조용하던 강의실이 북적거리고, 방학 기간 한산했던 식당도 인산인해를 이룬다. 정신 없이 한 주를 보내고 있는데, 제주대신문의 전화를 받았다. 원고 청탁을 받고, 오랜만에 아라캠퍼스에서 보냈던 학부 시절을 떠올리게 되었다.

사람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옛 기억에 머물렀던 한참 동안 행복했음을 고백해야 할 것 같다. 좋은 기억도 있고 그다지 좋지 않은 기억도 있지만, 인생의 주요한 한 부분인 대학 학창 시절을 한라산 자락에서 보낸 것을 아쉬워하거나 후회하지 않는다.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겠지만, 당시 불편했던 일을 들라면, 나는 서슴치 않고 식당과 서점을 쏘다. 구내 식당은 수용 인원이 충분하지 않았고, 교외 식당은 너무나 멀리 있었다. 학생회관 한 귀퉁이의 서점에서는 교재 이외의 다른 전공 서적을 구할 수 없었다. 필요한 책을 주문하더라도 일주일 이상 걸리는 시간 지체였다. 그나마 내가 필요한 한 권의 책이 울지 안 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서점 문제는 제주도 전체가 마찬가지여서, 실제 그 당시에는 책 한 권을 구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가야 하는 일이 있었다.

이런 기억에 잠겨 있다가, 문득 읽기와 보기에 대해 생각해 본다. 지난 시절 공부는 곧 책을 읽는 것과 등가를 이루고 있었다. 물론 몰래 소설책을 읽다 걸리면,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쓸데없는 이야기 책 읽는다는 핀잔을 듣기도 했지만, 하아튼 공부의 대부분은 책을 읽는 것이었다. 그것은 동서양이 한가지여서 아직도 영어에서는 강사나 교수를 ‘리더(책 읽어주는 사람)’이라 부르고, 우리 어른들은 서당이나 학교에 가는 것을 ‘글 하러 간다’라고 칭했다.

문화는 곧 우리 인간들의 삶이며, 그것을 대표하는 것은 곧 책이다. 문자는 대량의 정보를 많은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랜 동안 보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책 출판은 그 사회의 문화 수준의 척도로 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각 시대별로, 그리고 각 지역별로 독특한 출판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다. 특히 조선 시대는 학문을 근간으로 하는 양반 사대부들이 사회를 이끌어가던 때라 문자나 출판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 지금도 산소의 묘비들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학생...’이라는 문구가 보이는데, 이도 책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행위인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문화가 변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하긴 ‘미디어가 곧 메시지다’라고 외쳤던 맥루한의 통찰도 벌써 반세기전의 일이 되었다. 요즘은 읽기보다는 보기가 대세를 이루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업에서도 멀티미디어가 도입되고, 교강사들은 교재가 되는 책의 선정이나 독해보다는 수업에 사용할 파워포인트 작성에 바쁘다. 학생들도 차분히 앉아 책 읽는 시간보다, 컴퓨터 앞에 앉거나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를 검색하고 화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일상의 다반사가 되었다.

내가 보기에 이러한 추세는 더욱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나는 이런 추세에 저항하며, 학생들에게 이제 보기를 그만두고 읽기로 돌아오라고 외칠 생각이 없다. 그만큼 보기가 현대에서 중요한 지적 활동으로 승격되었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대신에 보기를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자산이 될 수 있는지, 읽기를 보기로 완전 대체하는 것이 정말 옳은 일인지에 대한 고민을 서로 나누어보는 제안을 하고 싶다.

독자기고

술 안 마시는 엠티문화 만들어야

강지환 / 환경공학과 1

대학 생활을 앞둔 신입생이 꿈꾸는 수많은 ‘로망’ 중 하나로 엠티가 빠질 수 없다. 중·고등학교 시절 엄격한 감시 속에서 일탈을 꿈꾸는 것이 수학여행의 매력이었다면 엠티는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떠나는 자유분방한 대학생의 문화의 징표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밀려오는 엠티 일정을 앞두고 ‘놀러간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지언정 엠티를 대학생의 ‘문화’로 받아들이는 신입생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신입생이 돼서 처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엠티를 가게 될 것이다. 고등학교와 다르게 같은 학과라도 다른 수업을 많이 듣기 때문에 만날 기회가 많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엠티를 가면 어색했던 친구, 선배님들과 친해질 기회가 생긴다. 활동적인 게임을 하면서 어색했던 친구들이나 선배들과 어울리게 되고 서로 어울리다 보면 서 조금씩 친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면이 엠티의 좋은 점인 것 같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술을 마시게 된다. 술을 마시면서 어색했던 사람들에게 더욱 쉽게 다가 가서 친해질수도 있다. 하지만 교수님들, 조교님들 학회장님들이 와서 술을 마시게 되고 술게임에 젖어 술을 마시게 되고 분위기에 취해 사람들과 친해지기 보다 술만 마시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 계속 술을 먹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술에 취하기 시작한다. 술에 취하면 술에 취한 사람

도 힘들지만 취한 사람을 도와줘야하는 다른 주변 사람들은 더욱 힘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재밌게 놀려고 왔던 엠티가 안 좋은 추억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학우들은 술에 취하지 않게 자신의 주량에 맞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술을 무조건 권하지 말아야 한다. 또 옆 사람이 취한 것 같으면 더 이상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마시고 토하는 MT가 아니라 자유롭게 놀다가는 친구들, 선배들과 앞으로 친하게 지내게 될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자리로 대학생들의 즐거운 문화로 남길 바란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학내외 이슈에 대한 주장, 대학생들에게서 느끼는 불편한 점 등 자유주제로 글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는 대학과 사회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신문에 게재된 독자기고에 대해 2만 5천원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 사진과 이름, 학과, 계좌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

-보내실 곳 : press@jejunu.ac.kr



이지현
메카트로닉스공학과 2

4:3이 가까워지고 있다. 제주도민들의 가장 큰 아픔인 4:3은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다. 하지만 필자는 솔직히 말해 4:3의 아픔에 대해서 제주도민임에도 불구하고 자세히 아는 바가 없다. 제주도에서 민주항쟁이 일어났고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수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필자를 포함한 제주도민 누구나 다 알 것이다. 그러나 정확한 역사적 배경이나 경과, 그리고 진상규명 노력들을 자세히 아는 사람은 드물 것이라 생각한다.

대한민국 가장 가까에서 겪었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왜 4:3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것일까? 필자가 생각하는 정답은 4:3에 대해 거의 주입식에 가까운 교육을 하려한 학교와 그것을 받아들이 준비가 되지 못한, 혹은 관심이 없었던 우리의 탓이 아닐까 싶다. 초등학교 때부터 4:3 글짓기, 4:3 추모행사, 동영상 등 수없이 많은 4:3관련 교육자료들을 접해온 우리다. 허나 막상 4:3에 대해 물어보면 정확한 실상은 모르는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다. 가끔 옥지에서 내려온 친구들이 4:3에 대해 물어올때면 대답이 궁해질때가 한두번이 아니었고 그 때문에 내가 더 한심해 보일때가 많았다. 그런데도 4:3에 대해 정확히 알아볼 생각이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학생들의 관심의 적다. 이를 비추어 볼 때 우리 학생들은 4:3이 너무 먼 일이

라고 생각했는지, 자기일이 아니라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4:3에 대한 관심이 매우 적은 것 같다.

물론 이번엔 나온 4:3에 대해 다룬 영화 ‘지슬’ 덕분에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서 4:3사건에 대해 관심이 높아졌으나 아직까지도 미흡한 것이 사실인 것 같다.

물론 관심의 부재와 미흡함, 지식전달의 확일화, 주입화 등을 지적하려고 글을 쓴 것은 아니다. 적어도 대학생만은, 제주에서 큰(大)교육을 받는 우리 대학생들만은 4:3에 대한 정확한 역사적 지식을 갖추자는게 필자의 생각이다. 물론 필자가 이런 말을 할 처지는 못 될지라도 제주도민으로서 4:3에 대해 무지했다는 것에 대한 충격이 필자로 하여금 4:3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여 기고하게끔 한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마지못해, 혹은 누군가가 가라고 해서 4:3 추모행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 4:3의 아픔에 공감하고 슬퍼해서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많은 제주도의 학생들이 위에서 언급한대로 4:3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지 못하지만 그에 반해 정확한 역사적 지식을 가지고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학생들 또한 많다. 그렇기에 그 친구들을 자원봉사나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구해서 캠프같은 형식을 정기적으로 기획하여 4:3에 대해 정확히 알고 보다 더 많은이들이 4:3에 대해 정확히 알아 마음 속 깊숙이 공감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글을 마치는 동시에 필자도 4:3에 대해 무지했던것에 반성하고 이에대해 보다 정확하게 찾아보고 공부하겠다고 약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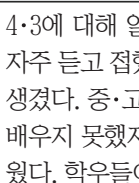
기자가 물었습니다

4:3에 대해 아시나요?



한승우 해양산업경찰학과 3

4:3은 제주의 슬픈 역사이지만 어떻게 사건이 일어났는지는 잘 모른다.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가르쳐주지만 교과서에 몇 줄 적혀 있는 것이 끝이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건인지 쉽게 알기 어려웠다. 4:3을 생각하면 죄 없이 돌아가신 제주도민들이 불쌍하다.



김숙경 생활환경복지학부 1

4:3에 대해 알고 있다. 어릴 때부터 집에서 자주 듣고 접했다. 그러다 보니 관심이 많이 생겼다. 중·고등학교 때는 4:3에 대해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박물관 등을 통해 많이 배웠다. 학우들이 4:3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박조현 전자생명전공 2

4:3에 대해 조금 알고 있지만 정확한 것은 모른다. 제주도에서 살고 있지만 옛날 일이다 보니 크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집이나 주변에서도 4:3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주변에서 4:3 관심도 많지 않다 보니 추모 행사나 평화기념관을 간 적이 없다.

정리=김동현 기자

» 평화의 섬으로 가는 길 - 오키나와를 가다 <1>

계속되는 전투기 굉음... 3만 7000여 미군 노른자땅 주둔

2차대전 후 동북아 전략적 기지로 활용

기지내 자급자족 가능... 미국이나 다름없어

제주대신문은 지난 1월 13일부터 5일간 ‘평화의 섬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오키나와를 현지 취재했다. 오키나와의 비극적 속명과 현재를 통해 제주의 현실과 관련해 평화의 의미와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취지다. 후텐마 기지, 카데나 공군기지, 사키마 미술관, 치비치리 가마, 안보가 보이는 언덕, 구 해군사령부, 히메유리 평화기념관, 평화기원자료관, 류큐대학 등 미군기지와 전적지를 방문했다. 이번 해외 기획이 ‘평화의 섬’에 대해 상기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오키나와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에메랄드 해변, 아름다운 자연 경관, 따뜻한 기후 등이 생각날 것이다. 하지만 오키나와는 흔히 생각하는 만큼 좋은 부분만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제2차 세계대전의 중심지였고 현재는 아시아의 미국이라고 불리고 있기 때문이다. 오키나와는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당시 일어난 오키나와 전쟁으로 폐허가 됐다. 또한 주민들의 다수는 전쟁으로 희생당했다. 전쟁의 결과로 일본이 아닌 미국이 한동안 관리했다. 오키나와는 1972년에 일본으로 반환됐지만 미군기지는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는 카데나 기지와 후텐마 공군기지 등이 있다. 오

키나와 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3만 7500여 명에 이른다. 미군기지는 오키나와의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미군이 일으키는 범죄 등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 먼저 후텐마 기지는 오키나와 혼도(본섬) 기노완 시에 위치하고 있다. 비행장 면적은 총 4.8㎢ 정도로 기노완 시 전체 면적의 약 25%에 달하고 있다. 기지 내에는 활주로와 관제탑, 해병대 기숙사와 교육의료센터 및 체육관 등이 갖춰져 있다. 미군은 태평양 전쟁 종료 후인 1953년 후텐마 기지 내 활주로를 2400m에서 2700m로 연장했다. 또 나이키 미사일(요격용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후텐마 기지를 동북아의 전

략적 기지로 활용했다. 미군은 1972년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된 이후에도 비행장을 계속 운영했다. 현재 후텐마 기지는 미국 해군들과 군함이 주둔하고 있다. 이 해군과 군함들은 한국에서 한·미 연합연습에도 참여하고 있다. 후텐마 기지는 사키마 미술관 옥상에서 바라볼 수 있었다. 앞에 나무들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수시로 전투기가 이륙하고 착륙했다. 전투기가 내는 굉음들을 듣노라니 괜히 불안했다. 미군들에게는 훈련이지만 전시상황 같은 분위기라고 느껴졌다. 주민들은 자국 훈련도 아니기 때문에 더 불안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카데나 공군기지는 1943년 9월 구 일본 육군항공본부 북비행장(현재의 요미탄 비행장)과 함께 건설을 시작했고 1944년 9월에 구 일본군 비행장으로 개설했다. 하지만 1945년 4월 오키나와에 상륙한 미군은 즉시 기지를 점령해 미군 소유가 됐다. 1950년 6·25전쟁 이후 미국의 군사적 보급기지로 점점 규모가 커졌으며 월남전에서도 미국의 수송기지로 활용됐다. 1967년에는 2개의 활주로는 완성되는 등 극동지역의 미국의 중요한 군사기지로 활용되고 있다. 이 기지는 현재 면적이 19.95㎢에

달하며 가데나정(町), 오키나와시(市), 우루마시(市), 요미탄촌(村), 온나촌(村) 2시, 1정, 2촌에 걸치고 있다. 기지는 군사적인 시설 외에 행정시설, 사법기관, 거주 지구 등이 따로 마련돼 있다. 거주 지구에는 유치원, 학교, 도서관, 야구장, 골프장, 영화관, 슈퍼마켓, 시추장 등이 완비돼 있다. 현재 거주 지구 내에는 미군과 미군 가족 등 약 9000명 이상 생활하고 있다. 시내로 나가지 않아도 자족적인 기능이 있어 군사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다. 가데나 공군기지는 미치노에키 카데나 전망대를 통해 바라볼 수 있었다. 전망대에서 바라본 기지는 후텐마 기지에 비해 매우 넓어 보였다. 기지 내에는 전차, 전투기들이 즐비해 있었다. 그런데 굳이 전차가 오키나와 내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는 미국 내에 생산하고 있는 전쟁용품을 팔기 위한 수단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다.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들은 주민들에게 양날의 칼과 같은 존재다. 미군이 일으키는 성폭행 사건 등 다양한 범죄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으며 전투기의 굉음 소리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또 가데나 공군기지의 경우 면적의 90%가 사유지일 만큼 토지를 강제 수용



후텐마 기지는 미국의 동북아의 전략적 기지로 활용되고 있으며 공군뿐만 아니라 해군기지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사키마 미술관 옥상에서 후텐마 기지를 볼 수 있다. 사진 왼쪽에는 전투기가 비행을 준비하고 있다.

한 부분도 있다. 기지 내에 땅은 주민들의 재산이지만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미군기지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미군기지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미군이 오키나와의 경제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다. 오키나와는 관광 수입이 가장 많지만 미군과 그들의 가족들의 소비도 경제에 한 몫하고 있다. 기지 근처에는 영어로 돼 있는 쇼핑몰이나 오락 시설이 들어서 있다. 주민들의 경제활동과도 연관이 있다. 오키나와 주민들 중 미군기지 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 기지가 이전할 경우 오키나와 경제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가 지주에게 미군기지의 토지사용료를 경작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보다 더 많은 돈을 매년 주고 있다. 때문에 다수의 오키나와 주민들은 미군 철수를 주장하지만 미군기지가 있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하는 주민들도 많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지역마다 미군기지에 대한 관심이 다르다.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대부분이 중부에 위치하고 있어 중부 지역 주민들은 미군기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하지만 남부와 북부 지역 주민은 오키나와에서 미군기지가 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크게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자기 일과 거리가 멀다는 생각에서다. 더불어 센카쿠 열도 문제로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미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아졌다. 예전에는 군의 필요성을 못 느꼈지만 중국과 대치 관계가 되면서 오키나와를 지킬 수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생겨났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일본 본토에 대한 신뢰가 많지 않다. 오키나와 전 당시 일본군이 오키나와 주민을 지켜준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내몰았기 때문이다. 일부의 주민들은 미군이 필요하다는 근거를 중국에서 대고 있다. 물론 근래들어 조금씩 오키나와 미군기지는 축소되고 있다. 냉전 시대

가 종결되면서 예전처럼 오키나와 미군기지에 병력을 많이 배치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 10월에는 미국과 일본이 오키나와 주둔 미군 해병대 7천명을 감축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미군기지로 속해 있다 반환된 땅들은 개발됐거나 진행 중이다. 사키마 미술관도 미군기지가 반환되면서 지어진 건물 중 하나다. 미군들도 예전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미군기지는 오키나와에 깊숙이 박혀 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미군철수를 외치고 있다. 놀라운 것은 미군철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시위하는 주민들의 상당수는 사회에서 은퇴한 노인들로 구성돼 있다는 점이다. 다음 세대들에게는 미군기지를 물려주지 싫다는 강력한 소망에서다. 미군기지로 인한 피해는 자신들이 감수해야 될 몫이고 미래 세대에게는 평화를 물려주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김동현 기자

다시 오지 않을
당신의 대학생활을 위하여

제주대신문 61기 수습기자 모집

“청춘을 가장 멋있게 불사르는 방법”

제주대신문에는
꿈을 찾는 이들, 꿈을 꾸는 이들, 꿈을 만들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두근두근 가슴이 뛰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우리들의 20대 그리고 대학생할!
가슴 뛰는 일상으로 빠져보실래요?

제주대신문
입사혜택

- 장학금 혜택(A급 우수학생기자장학금 또는 근로장학금 지급)
- 원고료(기사 성과에 따라), 취재 수수료(매월) 지급
- 현직 기자들로부터 취재교육(취재보도, 보도사진 등)
- 실제 언론사에서 활용하는 편집 시스템을 통한 편집교육
- 언론사 취업 적극 알선
- 해외 원정취재 기회 부여(일본, 중국, 필리핀, 미국, 라오스, 몽골 등)

모집대상 : 2013학년도 학부 신입생(아라캠퍼스, 사라캠퍼스)
2012학년도 입학생(재학생)

원서마감 : 3월 29일(금) 오후 6시

접수방법 : 제주대미디어(news.jejunu.ac.kr) 자유게시판에서
제주대신문 입사지원서(첨부파일) 다운로드, 출력 후 작성
제주대신문 편집국에 방문해 직접 제출

기타서류 : 자기소개서(성장배경, 성격, 입사지원 동기 등 기술)
1부 제출

장 소 : 대학원동 3층 언론미디어센터 내 제주대신문

문 의 : 제주대신문 편집국(전화 064-754-2277~9)

» 기지의 섬 오키나와

군사기지가 전체 면적의 10% 넘어 주민들, 미군철수·평화운동 지속 전개

일본열도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태평양상에서 만나는 섬 오키나와. 일본 본토보다 대만이나 필리핀에 더 가깝다고 느껴지는 오키나와에선 ‘일본 속의 또 다른 일본’을 만날 수 있다. 오키나와는 통일왕국이 건국된 1429년부터 일본에 통합됐던 1879년까지 450년간 일본과는 전혀 독립적인 류큐(琉球)왕국이 있던 곳이다. 15~16세기 대교역시대에는 명·조선·일본과 활발한 대외 무역활동을 전개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이후 임진왜란에 참전한 사쓰마(가고시마현) 지방 무사 시마즈 요시히로가 1609년 침략해 정복했다.

이후 류큐왕국은 1872년 류큐번으로 격하되고, 1879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일본 정부에 의해 국왕이 폐위된 뒤, 오키나와현으로 개칭됐다. 1945년 패전 이후에는 미군 점령 아래에 있다가 1972년에야 일본으로 복귀했다. 류큐인들은 일본어와는 다른 언어를 갖고 있었다. 오키나와인들은 “멘소레(어서오세요)” “하이사이(안녕하세요, 남자의 인사, 여자의 인사는 ‘하이타이’)” “니페데비드(감사합니다)” “낭크르나이사(어떻게든 잘 되겠지, 체면)” 등 현대 일본어와는 많이 다른 언어를 쓰고 있다. 한국어와 제주어의 차이보다 더 큰 차이를 보이는 방언이라고 한다. ‘평화의 섬’ 오키나와가 ‘기지의 섬’이 된 것은 일제가 동아시아를 침략하면서부터다. 태평양전쟁 말기 오키나와 전투에서 민간인 9만여명과 그보다 더 많은 일본군인들이 죽었다. 그때 1만여명의 조선인들도 희생



카데나 공군기지 앞에서 오키나와 주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취재팀이 시위하는 주민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당했다고 한다. 이후 미군기지들이 오키나와를 뒤덮게 되는데, 미군은 오키나와 상륙 직후부터 요미탄과 가데나 기지를 점령해 단기간에 확장·정비하고, 남부 전선의 군사 작전, 일본 본토 폭격, 군수물자의 수송 등을 위한 군사기지로 사용했다. 1960년 미-일 ‘안보개정’ 때 일본 본토의 미군기지는 4분의 1로 줄었으나 오키나와에선 오히려 2배로 늘었다. 1972년 오키나와가 일본에 반환된 뒤 일본 국토 면적의 0.6%에 지나지 않는 이곳에 주일 미군기지의 75%가 집중된 것이다. 오키나와는 현재 동아시아 주둔 미군의 후방 보급기지 구실을 하고 있다. 맥아더가 오키나와를 ‘우리의 천연국경’이라 했듯이, 미국에게 오키나와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현재 오키나와 미군기지의 규모는 전체 면적의 10%를 넘는다. 기지의 편의성을 가장 중시하는 미국의 입장은 ‘오키나와에 미군기지가 있는 것

이 아니라 미군기지 속에 오키나와가 있다’는 말로 축약된다. 오키나와 가데나시의 83%는 미군기지가 차지하고 있고, 가데나 미 공군기지의 활주로는 4km에 달한다. 전투기나 폭격기가 이착륙할 때 굉음이 엄청난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오키나와에는 또한 후텐마 미군기지가 있다. 이 후텐마 기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문제는 예민한 정치문제이다. 후텐마 미 해병대 기지를 폐쇄하고 북부의 헤노코에 신기지를 건설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15년 넘게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후텐마 기지의 이전 문제는 1995년 오키나와 주둔 미군에 의한 성폭행 사건부터 촉발돼 2004년 이후 주일미군 재편의 핵심사항으로 부각됐다. 2차 대전 종전과 아울러 미군기지가 들어섬에 따라 오키나와에서는 꾸준히 미군철수 운동이 벌어졌고, 풀뿌리 차원의 평화운동도 전개되고 있다.